부처님 계신다는 건 법화경 있다는 것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⑪ 삼전십이행

그때 대통지승불이 시방의 범천왕과 16왕자의 청을 받아들여 곧 삼전십이행(三轉十二行)의 법륜을 굴리시니,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천상이나 마군이나 범천들,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도 굴리지 못한 것이었다. 법륜을 굴리며 이르셨다.

"이것은 괴로움(苦)요, 이는 괴로움의 원인(集)이며, 이는 괴로움의 없어짐(滅)이며, 이는 고를 없애는 길(道)이다."

또 십이인연을 자세히 설하시니,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행(行)이 생기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識)이 생기고, 식(識)으로 말미암아 명색(名色)이 생기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입(六入)이 생기고, 육입으로 말미암아 촉(觸)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受)가 생기고, 수로 말미암아 애(愛)가 생기고, 애로 말미암아 취(取)가 생기고, 취로 말미암아 유(有)가 생기고, 유로 말미암아 생(生)이 생기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老死)와 우비(憂悲)·고뇌(苦惱)가 있느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후략〉"

〈법화경〉 '화성유품'에는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 등장한다. 이 부처님은 과거 무량무변 아승지겁에 있었던 부처님이라 한다. 3천 진점겁(塵點劫) 이전에 출현했던 부처님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이었으며 16왕자가 있었다. 이 왕자들도 부왕이 출가해 성도한 후에 출가하여 16사미가 되었으며, 이 16사미 중 마지막 막내가 석가모니의 전생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대통지승불이 본래 〈법화경〉을 설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통지승불로부터 〈법화경〉을 들었다고 한다. 중국의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삼설(三說)의 경전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삼세제불(三世諸佛)이 과거에도 설하고 현재에도 설하며 미래에도 설하는 경전이라 부처님이 상설(常說)하는 본래의 경전이라는 것이다.

'서품'에는 대통지승불처럼 일월등명여래(日月燈明如來)도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승지겁 전에 〈법화경〉을 설했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은 〈법화경〉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고 초전법륜을 필두로 일대시교를 설하다가 말년에 이르러 설한 경이 〈법화경〉인데 법화법문 안에서 볼 때 〈법화경〉은 언제 설했다는 특정의 시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초전법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사정제(四聖諦)와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을 〈법화경〉을 설할 때 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전십이행(三轉十二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사성제 법문을 설하실 때 고, 집, 멸, 도 각 제(諦)에 대하여 시전(示轉), 권전(勸轉), 증전(證轉)으로 세 번에 걸쳐 설하여 십이행(十二行)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시전이란 이것은 고(苦), 이것은 집(集), 이것은 멸(滅), 이것은 도(道)라고 사제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요. 고를 알라, 집을 끊어라, 멸을 증득하라, 도를 닦아라. 하고 권하는 것을 권전이라 한다. 증전은 부처님은 스스로 고를 알아 집을 끊고 멸을 증득하려고 도를 닦았다는 경험을 말해주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처럼 도를 닦아 멸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다.

십이인연이 전개되는 순서를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앞의 지(支)에 의하여 뒤의 지(支)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순관(順觀)이라 한다. 이는 중생에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중생이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미혹의 과정이다. 반대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여 하나하나 차례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과정을 관하는 것을 역관(逆觀)이라 한다. 원시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12인연법을 순관하고 역관하여 인연법의 실상을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12인연을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걸려 두 겹의 인과가 있다고 설하는 것을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이라 한다. 무명과 행의 두 지(支)를 과거생의 인이요. 식, 명색, 육입, 촉, 수는 현재생의 과가 되고 현재생의 애, 취, 유가 인이 되어 생, 노사의 미래생의 과가 있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범계했다면 바로 참회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⑪ 포살과 팔관재계

오계(五戒)의 실천은 표면적으로 다섯 가지 행위를 삼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덕성을 계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계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계(戒)를 받을 때의 마음가짐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거나, 간혹 불가피하게 계를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진실한 불자라면 참회(懺悔), 즉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쳐야 한다. 계를 받기 전에는 이전의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쳐야 하며, 계를 받은 후에는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덮어 감추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면, 그 잘못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 죄는 더욱 증장(增長)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렸다면 곧바로 그 잘못을 드러내어 뿌리 뽑아야 한다.

불교교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참회 의식이 행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포살(布薩, ⓢuposatha)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 바라문교(婆羅門敎)의 종교행사였던 우빠와사타(upavasatha)에서 유래한 것이다. 불교에 도입된 포살은 동일 지역 내의 비구들이 보름마다 만나서 지난 보름 동안의 행위를 스스로 반성하며, 죄가 있다면 고백해서 참회하는 행사이다. 매달 만월(滿月, 15일)과 신월(新月, 30일)이 되는 때에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ātimokṣa)를 외우는 것이 본래의 제도이다.

출가자와 달리 재가자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살의 의미와 방법이 다르다. 재가자의 포살은 육재일(六齋日)에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자발적으로 수지(受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가자에게 매달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에 팔관재계를 받아서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팔관재계를 포살계(布薩戒)라고 부르며, 팔재계(八齋戒)나 팔계(八戒) 등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팔관재계의 원조적인 형태는 〈숫타니파타〉의 '다미카경'에 나온다. 즉 ①산목숨을 해쳐서는 안 되며, ②주지 않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되며, ③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④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⑤음사(婬事)인 부정한 행위를 여의어야 하며, ⑥밤에 때 아닌 식사를 해서는 안 되며, ⑦화환을 몸에 붙이거나 향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⑧땅 위에 편 자리에서만 자야 한다.

〈중아함경(中阿含經)〉에는 팔관재계의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팔관재계는 오계에 세 가지 계를 더한 것이지만, 출가계의 성격을 띤다. 특히 오계 가운데 불사음계(不邪婬戒)는 팔관재계에서 불음계(不婬戒)로 바뀌는데, 평상시와 달리 재계하는 날에는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늘 범행(梵行)을 지키는 단음우바새(斷婬優婆塞)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다른 우바새들에게 재계하는 날만이라도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비시식계(不非時食戒)는 때 아닌 때[非時], 즉 그날 정오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하는 계이다. 불가무관청도식만향계(不歌舞觀聽塗飾鬘香戒)는 노래와 춤 등을 보거나 듣거나, 꽃이나 향으로 분장하고 장신구로 치장하지 않는 계이다. 불좌고상대상계(不坐高床大床戒)는 너무 크거나 높은 침상에 앉지 않는 계이다. 이 세 가지도 재가자가 평상시에 지키기 어려운 계이다. 따라서 팔관재계는 재가자에게 잠시나마 출가계 가운데 일부를 지키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⑪ 고대 인도의 성씨(姓氏), 고따마

싯다르타 성은 왜 '고따마'였을까

석가모니 붓다의 이름은 고따마 싯다르타(Gotama Siddhārtha)였다고 말한다. 모든 후대의 경전들이 그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사실이다. 여기서 고따마는 씨족의 성(姓) 즉 고뜨라(gotra)를 뜻하고 싯다르타는 이름을 뜻한다고 말한다. 이름을 굳이 풀어서 말하면, '좋은 소의 가문에서 태어나 목적을 성취한 사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석가모니의 이름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 챌 것이다.

만일 고따마가 석가모니의 출가전 그의 성씨를 말한다면, 이는 그가 크샤트리아 계급이 아니라 브라흐만 계급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리그베다에도 고타마는 현자(Ṛṣi)의 이름(성)으로 등장하며, 고대 인도 논리학파의 철학 논서 〈니야야 수뜨라〉를 지은 이도 고따마로 전해진다. 베다나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아할리야의 남편 역시 고따마의 또 다른 예일 것이다. 수많은 인도 경전 속에서 고따마는 명백히 대표적인 브라흐만의 성씨로 등장하며 이 점에는 예외가 없다. 이 외에도 고대 인도사회에서 유명하고 익숙한 브라흐만의 성씨는 카샤파(Kaśyapa), 바라드바자(Bharadvaja), 비슈바미뜨라(Viśvamitra)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의 성씨는 어쩌다 브라만의 성씨인 고따마로 정했던 것일까.

성씨를 의미하는 고뜨라(gotra)라는 말 자체는 아마도 가족의 단위를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go'(소)에 'tra'를 붙여 '소를 지키는 사람' 정도의 의미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소는 고대 인도사회에서 집안의 재산과 같았기 때문에, 재산을 함께 지키는 사람, 즉 같은 가족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소를 지키는 울타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해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 즉 가족 단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뜨라는 '결혼을 같이 할 수 없는 가족의 단위'라는 점이다. 이미 기원전 4세기경에 문법학자 빠니니(Pāṇini)는 '고뜨라'라는 말이 가족의 단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아들의 후손들을 고뜨라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고뜨라 내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따마가 석가모니 당시 고뜨라의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왕이(마찬가지로 그의 고뜨라도 고따마라면) 마야부인이 죽고 재혼한 대상이 석가모니의 이모 고따미였기 때문이다. 고따미는 고따마에서 온 말이다. 즉, 고따마의 여인이라는 뜻이다. 싯다르따는 고따미(Gotami)의 손에 컸기 때문에 만일 고따미 마하빠자빠디와 싯다르따의 친모 마야부인이 친자매 관계라면, 싯다르타와 그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같은 씨족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같은 고뜨라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풍습과 맞지 않게 된다. 사촌간 결혼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 고뜨라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마하빠자빠띠를 고따미라는 씨족의 이름을 붙인 것은 이미 정반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정반왕의 씨족 이름을 붙여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고대 인도에서 왕의 씨족 이름을 붙여서 부인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즉, 결혼한 여자 측은 자신을 낳은 친부(親父)의 성을 빌려와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라마야나의 여주인공 시따는 자나끼로도 불린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비데하의 왕 자나까였기 때문이다. 즉, 자나까 씨족의 딸이란 뜻이다. 결혼을 했어도 여성의 이름은 자신의 친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석가모니와 그의 이모가 같은 고뜨라일 수 있다는 후대 불교전통의 설명도 여전히 의문이며, 굳이 브라만을 대표하는 고뜨라, 즉 고따마라는 성씨를 석가모니에게 붙인 이유도 잘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석가모니가 전통적으로 히말라야 기슭의 농경사회에서 살아왔던 젊은이라면, 더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베다문화의 주역들인 인도-아리아인의 씨족이 확산되어 이를 석가족 조상의 일원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위빳사나 수행의 소의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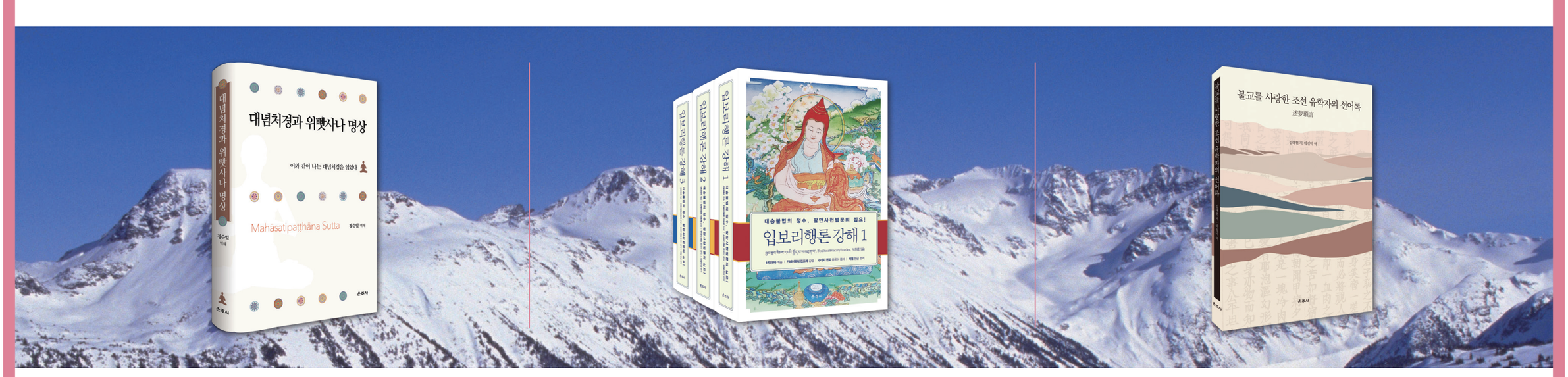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

티베트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조선의 유학자, 깨달음을 말하다!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불교 명상의 핵심인 사띠(sati)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대념처경』의 빨리어 전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번역하고 해설!

정순일 역해/신국판/양장/376쪽/값 22,000원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진메이펑춰 린포체가 방대한 해설을 달았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술몽쇄언述夢瑣言>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 생사 문제를
조리정연하게 설파한 보석 같은 책!

김대현 저/박성덕 역/국판/208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